

2023년 2월 12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Service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보라. 밤에 여호와와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Come, bless the Lord, all you servants of the Lord! Who stand by night in the
house of the Lord! Lift up your hands to the holy place and bless the Lord! May the
Lord bless you from Zion, he who made heaven and the earth!
시편 Psalm 134

사랑하는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빕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사, 온전한 예배와 말씀순종의 삶으로써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They Rejoiced Because of Its Encouragement
Acts 15:30-35

30.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So when they were sent off, they went down to Antioch, and having gathered the
congregation together, they delivered the letter.
31.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And when they had read it, they rejoiced because of its encouragement.
32.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And Judas and Silas, who were themselves prophets, encouraged and strengthened the
brothers with many words.
33.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And after they had spent some time, they were sent off in peace by the brothers to those
who had sent them.
34. (없음)
(어떤 사본들: 실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Some manuscripts: But it seemed good to Silas to remain there).
35. 바울과 바나바는(어떤 사본들: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But Paul and Barnabas remained in Antioch, teaching and preaching the word of the Lord,
with many others als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대지진 재앙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공의회(Jerusalem Council)가 끝났습니다. 바울(Paul)과 바나바(Barnabas)는 예루살렘을 떠나 시리아 안디옥으로 떠났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Judah called Barsabbas)와 실라(Silas)를 파송하여 이들 두 사람과 동행하게 했습니다. 단지 바울과 바나바 뿐 아니라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주었고, 예루살렘교회를 대표하는 두 명을 파송하여 그 편지 내용을 확증한 것입니다. 교회의 화해와 위로를 위하여 깊은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들 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에 왔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전했습니다.

안디옥교회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로한 말을 기뻐했습니다. And when they had read it, they rejoiced because of its encouragement.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위로한 것입니다. 안디옥교회는 기쁨에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교회에서 파송 받은 유다(Judah)와 실라(Silah)도 선지자(prophets)였습니다. 이들이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헤어질 날이 왔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자기들을 보내던 사람들, 곧 예루살렘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4절이 문제입니다. 우리 본문은 “없음”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들”(some manuscripts)은 “실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But it seemed good to Silas to remain there)가 있습니다.

질문이 남습니다: 실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을까요, 안디옥교회에 머물렀을까요? 구약도 신약도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실라(Silah)는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에 동참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파송되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랬다가 후에 안디옥으로 와서 바울과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본대로”(according to some manuscripts) 그가 그대로 머물다가 바울과 함께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문제로 논쟁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텍스트, 곧, 34절이 없는 본문을 바탕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합니다. 실라는 떠났습니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함께.

그런데 바울(Paul)과 바나바(Barnabas)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묵상합니다.

30.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So when they were sent off, they went down to Antioch, and having gathered the congregation together, they delivered the letter.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예루살렘교회에 작별했습니다. 예루살렘교회 출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가 이들과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31.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And when they had read it, they rejoiced because of its encouragement.

온 교회가 예루살렘공의회가 작성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 들어 있는 위로의 말을 기뻐했습니다. 율법이나 은혜나, 그 갈등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32.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And Judas and Silas, who were themselves prophets, encouraged and strengthened the brothers with many words.**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실라도 시리아 안디옥교회 목회에 동참했습니다. 말로써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했습니다.

**33.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And after they had spent some time, they were sent off in peace by the brothers to those who had sent them.**

유다와 실라가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작별할 때가 왔습니다.

**34. (없음)
(어떤 사본들: 실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Some manuscripts: But it seemed good to Silas to remain there).**

우리 본문은 34절이 비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본들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라가 시리아 안디옥교회에 머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는 사본학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절대다수가 선택하여 읽고 있는 우리 본문을 중시합니다. 실라도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교회로 돌아갔습니다. 후에 제2차 선교여행 때 이 예루살렘 실라가 안디옥에 올라와서 바나바 대신 바울과 함께 안디옥교회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35. 바울과 바나바는(어떤 사본: 도)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But Paul and Barnabas remained in Antioch, teaching and preaching the word of the Lord, with many others also.**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교회에서 머물면서 목회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을 돕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하자면 젊은 사역자들을 양성한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가르침은 교육(education)이요, 전파는 설교(preaching)입니다.

결론입니다.

제1차 선교여행에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겨난 갈등입니다. 전통으로 내려온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님께 의지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형제들을 파송한 안디옥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교회는 이들을 맞아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베드로가 일어났고, 이어서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루살렘교회는 정중하게 바울과 바나바 외에 유다와 실라를 파송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위로의 말씀을 들은 안디옥교회는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제2의 선교여행을 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물결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단도 생겨나고 무신론자와 우상숭배자들의 공격도 심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복음이 땅 끝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튀르키예 지역은 복음이 더욱 더 전파되어야 할 땅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왕성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때 복음의 물결이 높았던 곳이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선교사가 필요한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친 때와 같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서 이제 두 번째 선교의 물결을 맞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달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Comfort,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Speak tenderly to Jerusalem, and cry to her that her warfare is ended, that her iniquity is pardoned, that she has received from the Lord's hand double for all her sins.

이사야 Isaiah 40:1-2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사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온 나라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지진 재앙을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옵소서. 온 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